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3. 18.(월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성호철, 서기관 엄지희, 주무관 신한나 ·☎ (044) 201-3689, 3698
	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		·과장 심광현, 서기관 최용균, 주무관 정용우 ·☎ (063) 733-1141, 1142
보 도 일 시		2019년 3월 19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9.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

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...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

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

- * (사례1) 통합계획수립 및 통합심의를 통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(사업 시행 예정자: 새만금개발공사)의 사업 착공시기가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전망(당초 '21년→'20년)
- * (사례2)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 혜택으로 최대 100년 장기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기업경영활동 부담 크게 완화
 - 산단입주 국내기업 A사(약 2만㎡) 50년간 임대료 53억 원 감면혜택 예상
 - (법시행전) 임대료 67억 원→ (법 시행 후) 임대료 14억 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,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 '새만금 특별법')」 개정법률(18.12.31 공포)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○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*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**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.

* 개발계획+·실시계획 → 통합계획 수립 및 관련 평가도 통합심의

**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(토지가액의 5%→1%)

□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>

-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(통합계획)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.
 -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,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*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·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.
- * 위원회 구성: 관계부처·새만금청(고공단)·전북도(3급 이상) 각 1명, 개발사업 전문가 5명, 도시계획위·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, 에너지사용계획위·재해영향평가심의위·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최소 20명
-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 -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(평균 2년 소요)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 >

-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·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.
 -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·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%에서 1%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.
 -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다.

- 또한,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 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.
-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.
-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“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,
-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‘찾아가는 서비스’ 등도 시행하고,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“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엄지희 서기관(☎ 044-201-3689, 3698), 새만금개발청 최용균 서기관(☎ 063-733-1141, 11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